

구현모 “비대면 시대, 일시적 현상 아닌 변화의 흐름”

(KT 대표)

KT ‘포스트 코로나’ 세미나

언택트 기반 신사업 기회 등장
비대면 교육·의료·헬스 등 주목
바뀐 시장 요구 민첩하게 읽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에게 위기극복의 경험이 큰 자산이다.”

KT의 새 수장 구현모 대표가 21일 국내 젊은 벤처 투자자들과 함께 한 세미나 자리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구 대표는 “코로나 이전에는 기업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공급망, 직원 안전, 수요급감, 직장폐쇄 등 비상상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코로나 이후 확산되는 디지털 혁신과 비대면은 일시적인 사회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커다란 변화의 흐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페테리아서 샌드위치 세미나…“코로나19로 디커플링 본격화”

KT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지니뮤직 사옥에서 국내 벤처캐피탈 경영진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



구현모 대표가 세미나 참석한 국내 벤처 캐피탈 경영진들과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 무대 전면 패널리스트 오른쪽부터 미래과학기술지주 김판건 대표, KT 구현모 대표, 캡스톤파트너스 송은강 대표, LSK인베스트먼트 천민정 심사역. /KT

다. 이 세미나는 벤처캐피탈 업계 인사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니뮤직 사옥 카페테리아에서 샌드위치 등의 간단한 식사와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구현모 대표는 KT CEO 취임 이후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폭넓은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도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젊은 벤처 투자자에게 ICT기업 전문 경영인으로서 견해를 공유하고 업계의 다양한 고민과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구현모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주제의 강연에서 “코로나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과 1997년 IMF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타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특정 국가나 산업이 세계의 경제 흐름과는 달리 독자적인 경제흐름을 보이는 ‘디커플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 대표는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장비인 에크모(ECMO, 체외막산소공급장

치) 국산화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주요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망이 끊어질 상황에 대비해 필수부품 국산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T도 불가피하게 특정 고객센터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다른 고객센터로 업무를 이관시키는 체계를 구축했다며, 상시 업무를 백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현모 대표 “코로나 이후 새 사업 기회”…바이오·헬스·AI 강조

구 대표는 코로나 이후 전 산업에 걸친 디지털 혁신과 비대면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가 등장할 것으로 예고했다.

일례로 기존에도 화상회의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가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도 특정 교과목은 전국단위 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으며, 간단한 의료 처방의 경우 거동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도서산간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편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바이오·헬스 관련 사업도 성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오·헬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연장선상에서 무궁무진한

사업기회가 있다고 첨언했다. 구체적으로 정보기술(IT) 기반 의료서비스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도 새로운 시장 개척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구현모 대표는 “코로나로 위상이 격상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를 의미 있는 사회적 가치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번 경험으로 바뀐 사회와 시장의 요구를 민첩하게 읽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 대표는 KT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에 대해서도 스타트업, 벤처캐피탈과 협력을 도모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리딩하겠다고 강조했다.

KT는 최근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과 협력해 ICT기반 방역시스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손잡고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 공모전 ‘포스트코로나 AI 챌린지’를 지난달부터 진행 중이며, 오는 22일 최종 30개 팀을 선발해 발표할 계획이다. 우수 알고리즘 모델링 아이디어는 KT의 감염병 확산 방지 플랫폼 GEPP의 기능 고도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잇단 화재에 정부지원 종료까지… “내년 시장 방전 우려”

ESS산업 안정화 세미나

화재 등 악재에 시장 30% 축소
글로벌 시장 점유율 급락 우려

국내 ESS(에너지저장장치) 시장에 인센티브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SS란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에너지저장장치를 말한다.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는 전문가 진단을 통한 ESS 산업 안정화 및 위기관리 솔루션 제공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배성용 이맥스파워 대표이사는 이날 국내 ESS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서두를 열었다. 그는 “올해는 일단 국내 ESS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내년에는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노대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전망이 어둡다”며 “ESS가 아직까지는 자체적으로 경제성을 갖고 수익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에서도 인센티브와 같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시장이 형

성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15년과 2017년 각각 풍력, 태양광발전 연계 ESS에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국내 ESS 시장은 삼성SDI와 LG화학 등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2017년 8월부터 이어져 온 화재로 인해 발목이 잡힌 상태다. 특히 지난 2월 6일 ESS화재 2차조사위원회가 화재의 원인을 ‘배터리 이상’이라고 판명하면서 내수 시장의 전망은 밝지 않은 상태다.

배 대표이사는 “화재 이슈 및 전용요금제 일몰 등의 이유로 지난해 ESS시장은 전년 대비 30% 수준으로 축소됐다. 올해는 기존에 이미 계약됐던 대형 물량 외 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글로벌 시장의 최대 47%를 점유했던 국내 시장은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향후 글로벌 시장의 3% 이하로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ESS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기요금

할인 전용요금제는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한, 올해 12월 종료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ESS화재에 대해 추가 개선방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대석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ESS화재 관련 지금까지 다양한 원인이 나왔는데 2차 조사위에서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만약 실제 배터리 문제라면 이 같은 ESS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시스템 통합제어 분야, 외부의 전기적 위해요인, 배터리 시스템의 안전설계, 설치 및 운용기준 등 부문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배터리도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절연 강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안하고 배터리를 만들어 쓴 것이다”면서도 “그러나 배터리 자체를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SOC(충전잔량)를 낮추면 지금 화재의 90%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LG전자, 30만원대 실속형 스마트폰 ‘LG Q61’ 출시

6.5형 대화면 디스플레이 탑재

LG전자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벨벳’에 이어 실속형 스마트폰 ‘LG Q61’을 출시하며 제품 라인업 다양화에 나선다.

LG전자는 29일부터 이동통신 3사, 자급제 채널을 통해 LG Q61을 국내 출시한다. 출고가는 36만9600원이다.

LG Q61은 전면 1600만 화소 고화질 카메라, 후면 각각 4800만, 800만, 500만, 200만 화소의 표준, 초광각, 심도, 접사 카메라를 탑재했다. 후면 퀵드 카

메라는 최대 4배 망원부터 3~5cm 거리의 접사까지 다양한 사진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다.

LG전자는 최근 동영상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LG Q61에 6.5형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전면 베젤을 최소화했다. 또 디스플레이 상단에 카메라 구멍을 제외한 나머지를 화면으로 채운 홀인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전면 카메라가 차지하는 면적도 줄였다. 가로가 넓은 19.5:9 시네마틱 화면 비율을 구현해 몰입감도 높였다.

LG Q61은 4000mAh 대용량 배터리



LG전자가 29일 LG Q61을 출시한다. 모델이 LG Q61을 소개하는 모습. /LG전자

를 탑재해 동영상 시청, 웹서핑 등 전력 소비가 많은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배터리 걱정을 덜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동남아 4만5000원’ 7월 국제선 운항 재개

에어부산 국내·국제선 특가 진행

에어부산이 오는 7월 국제선 운항 재개를 준비하며 하반기 국제선 특가 항공권 판매에 나선다.

에어부산은 오는 7월 부산-홍콩, 부산-마카오 노선 재운항을 시작으로 중국 및 일본, 동남아 노선 등 국제선 운항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에어부산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지난 3월 8일 나리타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오는 항공편을 끝으로 국제선

운항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에어부산은 7월 국제선 예약이 오픈됨에 따라 이달 21일 오전 12시부터 31일까지 국내선·국제선 항공권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국내선 항공권의 탑승기간은 내달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며, 국제선은 각 노선별 재개 시점부터 10월 24일까지다. 편도 총액 운임 기준으로 ▲국내선 8000원 ▲일본 노선 3만5000원 ▲동남아 노선 4만5000원 등의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김수지 기자